

“오늘 회사에서 히포시(HeForShe) 캠페인을 진행해서 나도 참여했어! 성평등 지지자가 되어보니 꽤 뿌듯하더라고. 앞으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할 거야.”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단체로 찍은 히포시 인증샷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평등 가치와 의식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눈빛이 사뭇 진지했다.

남편은 히포시 캠페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남성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14년 유엔 여성(UN Women)에서 시작한 양성평등연대운동이라고 했다.

“내가 생각하는 히포시는 당신이 직장에서 성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우리 딸이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격체로 존중받는 거야. 그건 내 행복이기도 해!”

남편의 말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차별을 받고 살아온 내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부모님은 장남인 오빠를 낳았지만 더 많은 손자를 원했던 할아버지 때문에 언니와 나를 연이어 갖게 되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번에도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한동안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 엄마는 딸 둘을 연달아 낳은 덕분에, 오빠를 낳았을 때는 겪지 않았던 혹독한 시집살이까지 겪어야 했다.

나 역시 자라면서 딸이라는 이유로 냉대를 당하고 눈칫밥을 먹었다. 학교에 갈 때는 오빠에게만 용돈을 주어 준비물 한번 변변히 챙겨가지 못했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온 날이면 언니와 함께 이유 없이 맞아야 했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면 나와 언니가 엄마를 도와 일을 하는 동안, 오빠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음식을 먹기 바빴다. 오빠가 음식을 좀 달라고 재촉을 하면, 할머니와 엄마는 나에게 빨리 음식을 가져다주라며 성화를 냈다.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무조건 “안 돼. 계집애가 무슨.” 이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 남자인 오빠가 우선이고, 오빠를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 심지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계집애가 재수 없게 지 오빠보다 공부를 잘한다며 불평의 대상이 됐다.

고등학생 때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계집애가 공부해 뭐해. 네 언니처럼 적당히 돈 벌다가 시집이나 가!” 라며 무시당했다. 당시 나는 대놓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집안 분위기가 싫어 일찌감치 도시로 나와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성차별은 여전했다. 입사 면접 때 나는 ‘결혼 계획이 있는지, 출산 후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다. 남자라면 결코 듣지 않을 질문들이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 심사에서 남자 동료들에게 계속 밀린 적도 있었다. 능력이나 경력 면에서 승진에서 밀릴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직속상사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런 내게 직속상사는 “현정씨 얼마 전에 결혼했지? 그러면 이제 곧 임신도 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승진 안하면 덜 바쁘고 좋지, 뭘 그래. 내가 출산한 후에 직장 그만둔 사람들 술하게 봤어.” 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앞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것 같아 너무 억울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나는 사측으로부터 퇴사를 종용 당하기까지 했다.

생각해보면 출산과정에서도 분명히 성차별은 존재했다. 첫아이로 딸을 낳았는데, 시부모님께서 대놓고 서운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싶었다. 그 후 남편이 딸아이를 돌

보거나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부모님은 적잖이 못마땅해 하셨다.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는 내가 마치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반기시며 남편을 향해 “네가 애도 좀 봐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

성차(性差)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일들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 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비해 지금은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아졌지만, 우리 주변에는 엄연히 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제정된 날이다. 성평등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기계적인 평등이 아닌 공평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히포시 캠페인이나 양성평등주간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꾸준히 변화시켜나가고 있어 앞으로를 기대케 한다. 향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여자다움이나 남자다움이 아닌, 사람다움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나는,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과 능력을 존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